

“그리던 母國은 크게 發展했었다”

呼稱에 異見있었으나 全般的 印象은 好む

— 空港에서 出迎받고 설레는 마음 금할수 없어 —



張泰浩 (在獨韓國科學者)

이 글은 東獨에서 自由의 품으로 돌아온 在獨同胞·醫師인 張泰浩씨가 지난 4月 國內에서 開催된 第8次 國內外 韓國技術者綜合學術大會에 參席한 後 나름대로의 見解를 적어 韓國科學技術 團體總聯合會에 보낸 것이다.

비록 國內實情에 어둡고 短片的이긴 하나 모처럼 母國을 訪問한 그들의 눈에 投影된 모습이 어떤가를 실어보는 것도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실기로 했다.

張씨는 이 글에서 잇가 4百 50萬원 相當의 最新型 獨逸製 마취기계 3臺를 國內病院에 기증할 뜻을 밝히고 主선 해 줄 것도 아울러 希望했다. <편집자주>

◆ 반겨준 母國訪問 ◆

지난 77年 내가 母國인 韓國을 찾았을 때는 찾아주는 사람은 勿論 반겨하는 사람도 없었다. 잠자리와 머무를 곳을 찾아 서울의 여관거리를 헤맸던 그때의 내 마음은 쓸쓸하기만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구라파에서 活動하고 있는 韓國科學技術者들과 두번째로 訪問하였을 때는 뜻밖의 光榮에 그져 어리둥절 했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여러 선생님들의 따뜻한 歡迎과 人事를 받으며 다시한번 母國 大韓民國을 밟았던 것이다. 空港에서 母國을 찾아온 우리들과 歡迎을 나온 學術大會 準備委員들과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주고 받으며 웃음을 나눌

수 있었을 때 나의 마음은 설레기까지 했다.

歡迎을 받던 그 時間부터 4月 16日 靑瓦臺를 訪問하고 나서 學術大會가 끝나던 때까지 내가 여러 선생님들에게서 받은親切하고 정다운 대우와 特別한 配慮에 대해 진심으로 感謝를 보낸다.

◆ “亡命科學者” 異見있었으나 全般的印象은 좋았다 ◆

「亡命科學者」라는 단어 때문에 空航에서 몇몇 선생님들과 그리고 신문기자선생님들과 우리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의 부조화는 있었지만 이번 母國訪問을 나는 全般的으로 좋은 印象으로서 받아 들였다. 나는 이를 앞으로도 오래 두고 회상할 것이다.

나의 느낌은 韓國의 기적적이며 눈부신 建設과 生産, 웅장하고 급속도로 發展되어 가는 工業化, 아름다운 祖國, 좋은 우리 韓國에 대해서가 아니라 勿論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크지만 보다 비판적인 관찰을 써보겠다. 正確한 科學이 특히 重要的 비판적 관찰에 대해 쓰자니 감당하기도 어렵고 겁이 전혀 없지도 않지만 이를 理解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韓國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해 보자는 마음에서 勇감성을 發揮해 보았다.



◆ 學術大會 組織은 良好 ◆

參加者の 일원으로 볼 수 있었던 學術大會의 組織은 잘 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內容에

있어서는 學術大會에 參席한 科學者들間에 水準의 差異가 컸다고 생각된다.

김석식博士와 김영덕博士는 새롭고 特殊한 專門講演을 準備했으나 청중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一般的인 강연으로 바꿔 알려 주었다. 나역시 일반적인 講演을 90分의 분량으로 準備했었으나 制限時間이 20분으로 되어있어 研究한 材料를 發表했는데 청중가운데 이를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느껴졌다.

專門의 分野에 있어서도 大會參席者들의 範圍는 너무나 多樣했다고 생각된다. 같은 분야의 專門家들의 參席者數가 적었기 때문에 學術的 成果는 클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特定分野에 局限하면 效果더욱 클듯 ◆

全斗煥大統領閣下가 청와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國內·外 科學者들間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다음부터는 特定 제목을 놓고 그 分野의 國內·外 科學者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다면 얻는 成果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國內外 學術大會는 理論과 實習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꼈다. 그 같이 해야만 理論을 實習에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韓國科學者들을 研究하는데 있어 實習보다 理論에 더 치우쳐 均衡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勿論 이것은 研究費 問題로 알고는 있으나 좋은 理論, 우수한 科學的 知識을 實際 人間生活에 適用하지 못하면 이는 죽어있는 理論이며 그런 科學者 亦是 効用價値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科學者를 養成하기 보다는 既存 科學者가 지니고 있는 지혜를 한껏 發揮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므로써 그 方向의 科學이 發展될 수 있고 成果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適定技術서부터 選擇해야 ◆

이와 關聯해 外國에 나가 活動하고 있는 韓國

科學者들에게 政府가 관심을 두는 것도 經濟的으로나 學術發展의 側面에서 價値있는 일이라 하겠다.

관심 가운데 우선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 韓國의 興味가 큰 科學技術이 特別히 發展되어 있고 그것이 經濟的, 學問的으로나 効用價値를 갖고 있는가를 把握해야 하겠다. 다음에는 外國에서 活動하고 있는 科學者들에게 正確한 國內의 科學, 그리고 經濟實情을 자주 알려 주어 그들의 興味를 높여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는 지혜있고 努力하는 科學者를 保護해 後에 歸國하면 조금도 支障이 없이 研究事業 또는 生産活動을 促進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이 같은 관심을 둔다는 것은 政府가 外國에서 活動하는 科學者들에게 이를테면 後에 歸國해서 活動할 수 있다는 條件을 붙여 호기심을 크게 한다는 이야기도 된다.

◆ 産業視察中에 들은 이야기 ◆

내가 이번에 産業視察과 研究所를 見學하면서 나는 醫師였으므로 機械에 대한 것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미 歸國하신 선생님들의 말씀과 또 歸國하고 싶어하는 우리 일행중의 科學者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야기 내용을 보면 歸國한 선생님들은 歸國 當時엔 포부가 컸다고 한다. 그러나 歸國하고 2~3個月이 지나면 자기가 생각한대로 研究事業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理由로는 그들이 實驗과 研究事業에서 쓰는 간단한 그리고 基本的인 도구도 없기 때문이란 다. 처음에는 歸國할 때 갖고 온 것으로 使用했지만 다 쓰고 냈거나 깨져서 그것을 要請하면 몇 달이 걸린단다. 그러니 그 몇달간은 研究事業이 자연히 중단되는 것이다.

◆ 頭腦誘致와 研究風土 ◆

그들은 또 國內에선 最新型인 그리고 高價의 機械들을 사 들였으나 이것들이 効果的으로 使

用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 같은 큰 機械들은 마지막 實驗經過를 確認하는데 대개가 使用된다고 한다. 그러나 結果에 도달할 때까지의 實驗研究가 重要하지 않겠는가. 결국 科學者들의 지혜, 성의, 소질, 事業에 대한 희열, 이 같은 즐거움은 大部分「能力의 原則」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歸國後 本人이 일하고 싶은 자리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政府가 계도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韓國의 科學技術發展을 위한 도움이 될 것이다.

政府에서 미리부터 國內 責任者와 外國에서 活動하는 歸國 希望者와 일정한 연계를 지워 주므로서 서로 人間的으로 알게 되고 事業計劃을 토의할 수 있으며 研究材料, 實驗道具등 충분한 準備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成果는 매우 높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될 때 비싼 科學者들을 歸國시켜 놓고 빈둥 빈둥 놀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高價의 기계 등을 사 오는 대신 초보적인 實驗藥, 實驗道具를 準備시켜 그야말로 알찬 研究, 成果가 있는 事業이 이루어질 것이다.



◆ 國內麻醉學科에 異見 ◆

이제 나의 專攻인 醫學部門에 대한 소견을 말해 보겠다.

서울에서 그리고 地方에서 大學病院을 다녀 보았다. 여러 麻醉科 醫師先生님들과 麻醉科施設을 둘러 본 것이다. 나는 麻醉學이라면 重患者

治療를 하는 것이 麻醉科醫師라고 공부했고 또 일해 왔다. 그러나 國內 麻醉科는 麻醉를 하는데 중점이 있고 重患者 治療는 잘 되어 있지 못하거나 전혀 없다고 해야 하겠다. 勿論 重患者를 治療하려면 많은 돈이 必要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大學病院, 서울大學病院에는 그런 施設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國內 麻醉學 醫師先生님들이 重患者治療 臨床에는 經驗이 적고 知識도 알은 것도 그런 理由 때문인 것 같다.

—예로서 내가 講演한 人工的 營養供給에 대해 이것은 重患者에게는 모두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알고 있는 醫師先生님들이 없었다.

◆ 工夫는 美國式 運營은 日本式 ◆

그래서 나는 두가지의 의견을 말해 보겠다.

첫째로는 韓國에서 醫師先生님들이 獨逸로 英國으로 스위스로 등등 많이 나와 1~2年 臨床을 하고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 成果는 크지 못하다. 이 1~2年이란 期間은 불편한 言語를 감안할 때 너무나 짧아 姿勢한 內容을 알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外國의 專門家 특히 外國서 활약중인 韓國醫師들을 초청하거나 休暇期間을 利用, 일하도록 추선한다면 效果的

일 수 있겠다.

두번째로 韓國의 醫學工夫는 美國式을 본 받고 있으나 일을 하는데 있어선 日本式을 따르고 있다. 모든 것을 美國式으로 하든가 或은 韓國式으로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具體的인 理由를 言及하기엔 너무나 길고 또 당장 해결될 問題가 아니겠기에 이는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다.

◆ 健康保險과 疾病保險 ◆

이와 관련지어 健康保險에 대한 疾病保險社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다. 나는 이번에 健康保險會社에서 講演을 했다. 韓國에서는 지금 日本式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日本은 過去 獨逸制度를 본 딴 것이다. 韓國保險會社도 지금은 獨逸에서 直接 배울려고 하는 要求가 있는 것 같았다. 本人도 큰 관심을 갖고 이 分野에 知識을 넓힐 豫定이거나 이 問題로 國內에서 關係者들의 獨逸에 온다면 관계 責任者들에게 소개해 도울 것이며 앞으로 國內에서 要請이 있으면 講演이나 實習으로 本人이 알고 있는 것을 기꺼이 보여줄 計劃이다.

이번 機會에 母國에 대한 나의 관심이 더욱 커진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긴다.

利權請託 없는 社會

이룩되는 福祉國家!